

당초 요구액중 60억삭감 어항발전계획도 무산 투자 확대만이 살길

李 壽 仁〈大型機底水協 組合長〉

어항은 어촌사회의 핵이다. 왜냐하면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 사회가 형성되며, 또한 이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어항의 역할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어항은 항내의 수면을 잠잠하게 하고, 폭풍이나 해일이 몰아쳐 올 때 그 힘을 분산시킴으로써 각종 시설과 어민의 소중한 재산인 어선을 보호한다.

그런가 하면 평상시엔 어선이 접안해 어획물을 양륙하기도 하고 이의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시설이 들어서 수산물 유통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소득증가와 국민여가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어항이 관광과 위락기능까지 수행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국민휴양지로서 탈바꿈하는 다목적 기능까지 추가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과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전통적인 어항의 개념, 즉 어선의 정박이나 입출항 정도의 역할은 이미 고전이 된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어항의 기능과 역할의 다양성 만큼 이제 어항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어항개발에 관한 어민들의 욕구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투자이다. 이렇게 어항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비하면 어항개발투자는 제자리 걸음 내지는 오히려 퇴보하는 실정이다.

어항예산 사실상 감소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동안 어항개발투자예산이 조금씩 증대돼 온건 사실이나 매년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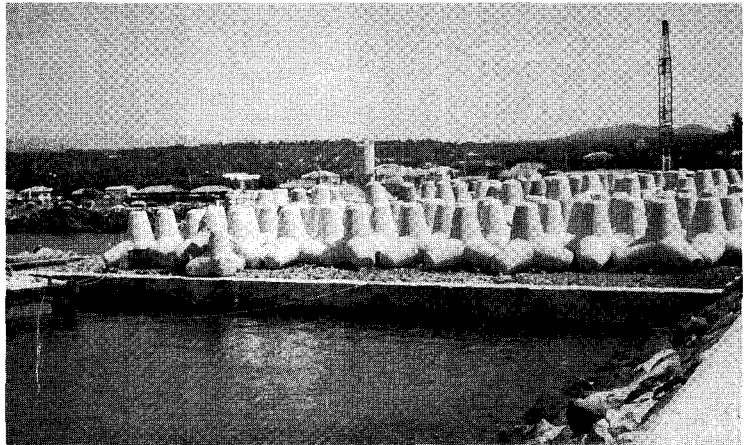
더욱이 '93년 올해의 경우 '92년 예산인 6백3억3천1백만원보다 오히려 5.7%나 줄어든 5백68억6천3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수많은 어항인과 어민들에게 큰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어항인들이 받은 충격은 결코 예산 삭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체 사회간접자본이며, 국가기간산업인 어항을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인식에 대한 문제였다.

물론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다. 가계나 기업같은 작은 규모를 꾸려나가는 데도 많은 지혜와 고

통이 뒤따르는데 하물며 나라의 살림을 도맡은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은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나 우리나라의 자원 여건상 가장 확실한 1차산업을 들자하면 두말할 여지없이 수산업을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수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수입이 개방되었을 때 그래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1차산업으로는 수산업 외에는 별로 찾을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어민과 어항인에게는 못내 실망스러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외형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최근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항개발투자의 부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수산업을 보다 기업화, 대형화, 전문화하려 해도 기간시설이 이를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원만한 수산업경영을 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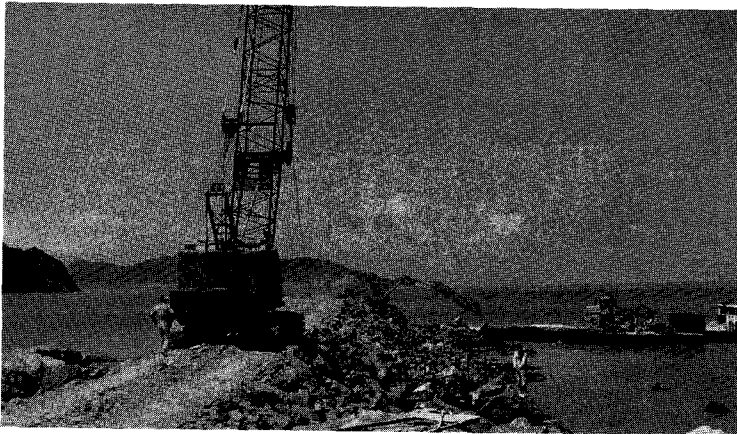
어항개발투자예산의 문제점을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70

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어항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항예산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70년대까지 연평균 어항개발투자예산이 불과 14억원 안팎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 이후 80년대초까지 어항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나 사정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겨우 연평균 35억원 안

뛰어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같은 수치상의 문제가 오늘날까지 본격적인 어항개발투자를 주저케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8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본격화된 짧은 연륜이 정부가 어항투자의 정책상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해답은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예에서 쉽게 찾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 곧바로 전국의 어항정비사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로 일본은 70년대에 이미 전국 어항의 기본시설을 완공하고 올해까지 제8차 어항정비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9차 어항정비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다.

어선만이라도 안전 수용할 수 있어야

중요한 것은 일본은 지금도 한해 전체 수산부문예산의 65% 안팎을 어항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20% 안팎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오늘날 일본이 세계적인 수산대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

룬 그 배경에는 이같은 엄청난 어항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결코 우연이나 천혜의 자연조건 때문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는 약 2,100여개의 항포구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83개 수산청 1·3종 지정어항의 완공률이 60% 안팎, 316개 2종지정어항의 완공률은 겨우 30% 안팎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어촌관광지나, 국민휴양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어항 고유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어선의 증가세나 수산물의 증가세를 제대로 소화해낼 능력이 없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등록어선은 현재 약 9만9,000척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62년의 4만5,400척에 비하면 놀랄만한 증가율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톤수로 보면 '62년의 16만2,000톤에서 최근 95만톤으로 6배 정도나 증가하였다.

또한 수산물 생산량을 보면 '62년의 47만톤에서 최근엔 330만톤으로 7배이상 증가함으로써 기존 어항이 이미 포화상태가 돼 가고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지는 않았다. 수산청은 이러한 어항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92~2001년까지 이상어항건설을 위한 어항발전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계획기간인 10년동안 모두 2조5,680억원을 투자

하여 450km의 시설물과 505개의 어항을 건설하겠다는 야무진 이 계획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아무야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94년 어항예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당초 요구했던 698억8,400만원에서 60억원이나 삭감된 639억5,400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항의 현안을 직시하고 있는 수산청이 어항예산의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어항개발의 필요성과 투자의 타당성을 관계요소에 직접 나서 설명하고,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식제고 투자를확대

주어진 예산을 수산 전체 부문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편성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면 또다른 방편도 있다. 이제 공식적인 법정법인으로 출발하게 되는 한국어항협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이다.

일본의 경우 전국어항협회가 어항정비사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협회가 제출하고 요구하는 예산의 상당 부

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항개발과 어항예산의 확대에 대해 그렇게 절박하게 들고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수산청은 수산청대로 수산예산의 적정배분과 고른 수산업 발전을 염두에 두어야만 했고, 어항의 실제적인 이용자인 동시에 관리자인 수협은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간산업 활동을 게을리하다가 도로적체와 항만부족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어항개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실기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



한마디로 어항개발이나 어항예산 확대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

한국어항협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어항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주지해야 할 것은 어항개발은 결코 1,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적어도 10년, 혹은 2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기하급수적인

항개발의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왜 어항을 개발해야만 하고, 어항투자가 늘어나야만 하는가를 정부와 어민, 어항인 모두가 다시한번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앞으로 닥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으로 믿는다.㉔